

# 옥봉 백광훈 연구\*

권순열\*\*

|               |  |
|---------------|--|
| <차례>          |  |
| 1. 서언         |  |
| 2. 호남 시업의 계승자 |  |
| 3. 백의 종사      |  |
| 4. 호남 제일의 명필  |  |
| 5. 결어         |  |

## 1. 서언

옥봉 백광훈(1537, 중종 32~1582, 선조 15)은 조선 중기 조선 시단을 가장 아름답게 수놓은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이해를 위해서는 옥봉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과 평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옥봉의 경우는 문학적 위상이나 인간적 측면에서 너무 낮게 평가되거나 쉽게 언급되었다. 그 이유는 다분히 옥봉과 옥봉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환경에 원인이 있었던 같다. 그렇다고 해서 옥봉의 실상을 드러내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옥봉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이루어지면서 옥봉의 모습이 새롭게 정립되

어 가고 있다.

옥봉이 호남 한문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옥봉은 조선조 한시에서 다른 작가와는 전혀 다른 리듬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호남인의 정서는 물론 가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옥봉의 시가 지니고 있는 호남의 가락을 밝히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놀재 박상에서 시작하여 석천 임억령을 거쳐 이룩된 호남의 시업을 완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옥봉은 과거를 통해 환로에 진출하지 않아 비교적 以文報國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백의로 종사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때의 일화를 살펴 당시 중국 사신의 시를 보는 안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옥봉 연구에서 거의 접근하지 않은 그의 서예의 세계와 서예가로서의 위상도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옥봉의 연구에 대한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옥봉의 삶과 문학이 지니는 의미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호남학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 2. 호남 시업의 계승자

호남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물산으로 학문과 예술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터전이 잘 마련되어 있었다. 도처에 정자가 있고, 훌륭한 문인들과 학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주변에는 과거를 준비하고 학문을 닦고자 하는 문하생들이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환경으로 특히 조선 중기에는 호남에서 많은 학자와 시인들이 배출되었다.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호 인형수, 하서 김인후, 송천 양응정, 사암 박순, 고죽 최경창, 옥봉 백광훈, 백호 임제, 태헌 고경명 같은 이는 모두 뚜렷이 돋보이는 자들이다.<sup>1)</sup>

이들을 일컬어 흔히 호남 10걸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조선 중기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별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들은 학문도 뛰어났지만 시에도 특출한 경지를 개척한 인물들이기도 하다. 시를 자신의 주업으로 여기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고려 중기의 서하 임춘이나 오세재, 말기의 졸옹 최해 같은 경우도 시에 대해 치열한 의식을 지녔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를 업으로 여기고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로에 진출하기 위해 몸부림치다 뜻을 얻지 못해 자신의 울분을 시로 풀어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sup>2)</sup> 조선 중기에 들어 호남의 시업을 개척한 사람은 박상이다. 박상은 성현, 신광한, 황정욱과 함께 서거정 이후 四大文章家로 꼽혔다. 그의 삶은 시련과 좌절의 연속이었지만 아무리 바쁜 벼슬살이에도 반드시 「離騷經」을 외고, 律詩 1수를 지은 후에라야 잠자리에 들었다고 한다.<sup>3)</sup> 이것은 박상이 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았음을 말한다. 그렇다고 박상이 시업에만 전념했다는 것은 아니다. 박상은 여러 해 동안 내직과 외직을 넘나들며 공무의 여가가 있을 때마다 시업을 닦았다. 그는 호남에 시업의 토대를 쌓고, 임억령이라는 시업의 계승자를 교육한 것이다.

임억령은 박상과 박우의 문하를 드나들며 학업을 닦았다. 박상이 일찍이 임억령에게 『장자』를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문장가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sup>4)</sup> 여기에서 박상의 안목을 알 수 있다. 임억령은 유자로서 수기

1) 頃世詩人多出於湖南 如朴訥齋祥 林石川億齡 林錦湖亨秀 金河西麟厚 梁松川應鼎 朴思菴享 崔孤竹慶昌 白玉峯光勳 林白湖弟 高苔軒敬命 皆表表者也. (李晔光, 『芝峰類說』, 卷十四, 文章部 7, 詩藝)

2) 권순열, 「늘재 박상 연구」, 『古詩歌研究』 第21輯, 14쪽.

3) 李濟臣, 『大東野乘』, 卷之五十七, 「清江先生鯁鯿瑣語」, 清江先生詩話 참조.

4) 訥齋嘗授石川莊子曰 爾必爲文章. (朴東亮, 歷朝舊聞三, 中宗, 「寄齋雜記三」, 『大東野乘』, 卷之五十一)

치인을 위해 학업을 닦고 있었다. 하지만 처자로서는 여러 면에서 맞지 않았다. 오히려 시인이 그에게는 맞는 면이 많았다. 어쩌면 박상은 제자의 그러한 면모를 이미 꿰뚫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林億齡은 흥이 나면 종이 백 장을 다 쓰고, 잠간 사이에 권질을 이룰 정도<sup>5)</sup>로 詩作 능력이 뛰어났었다. 그리고 栗谷 李珣가 “평생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오늘에야 公에게 꿇는다.”<sup>6)</sup>고 말할 정도로 수준 높은 시와 문을 많이 남겼다. 임억령은 스승의 말처럼 훗날 강남의 사종<sup>7)</sup>으로서 호남문단을 주도하였다. 그 과정에 임억령은 많은 시인들과 수창을 하였다. 특히 양응정과 韓國文學사상 유례가 없는 棠城酬唱詩를 남기고 있다. 두 사람은 詩의 能力을 가지고 자웅을 결하는데 모든 기교와 전략을 동원했다. 詩爭의 차원을 넘어서 詩戰의 양상을 띤 것이다. 결과에 따라서는 양인 중 한 사람은 학문과 명예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격렬한 수창을 했다. 이것은 임억령의 삶이 시로 일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임억령은 공무 중에도 시에만 집착하여 심한 경우에는 공무에 지장을 줄 정도였다. 그러므로 내직이나 권력의 중심에는 있을 수 없고, 항상 외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었다. 임억령은 공무에 종사할 때나 물러나 재야에 있을 때에도 그의 관심사는 시뿐이었다. 그러한 임억령의 시업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 옥봉이라 할 수 있다.

옥봉과 임억령의 만남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옥봉의 나이 13세(1549) 때에 풍악산으로 돌아가는 스님에게 시를 주었는데, 임억령이 비평하기를 이태백이 다시 태어났다고 했다.<sup>8)</sup> 이것으로 보아서 이때부터는 양인 사이에 교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임억령이 54세 때인 1549(己酉)년에 옥봉·양응정 등과

5) 興來百紙盡 倏忽成卷帙. (李珣, 『栗谷全書』, 卷之一, ‘次林石川億齡韻’)

6) 生平不屈膝 今日爲公屈. (李珣, 위의 책, 같은 곳, 같은 시 참조)

7) 白光勳, 『金陵記』觀禮軒主人, 『玉峯集』下 參照.

8) 年十三 以詩贈僧歸楓嶽 林石川億齡批曰 謫仙復生. (鄭澹, 墓碣銘, 『玉峯集』 수록)

수창을 했다는 기록<sup>9)</sup>으로 보아서 임억령이 옥봉과 직접 만나 수창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억령은 평소 명리를 멀리하고 시를 좋아했다. 그래서인지 낮은 관직으로만 머물렀던 옥봉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가졌다.

江月圓復缺이요 강 위의 달은 둥글었다가 다시 이지러지고  
庭梅落又開라 뜰의 매화는 졌다가 또 피네.  
逢春歸未得하여 봄을 만나도 돌아가지 못하여  
獨上望鄉臺라 홀로 망향대에 올라가 보네.  
送白光勳還鄉<sup>10)</sup>

고향에 돌아가는 옥봉을 전송하고 지은 시이다. 옥봉을 멀리 보내는 아쉬움이 짙게 베여 있다. 하지만 자연의 법칙에 따라 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이별은 이미 다음의 만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옥봉과 임억령은 39세의 나이 차이가 있다. 그런데 임억령은 옥봉을 벗처럼 대하는 망년교를 맺고 있다. 옥봉과 임억령의 관계는 세속적 사승 관계는 없다. 그러나 옥봉이 시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임억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옥봉의 문학적 스승은 임억령인 셈이다. 옥봉의 시는 임억령의 구수한 맛과 유려한 가락은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옥봉의 시는 간결하고 산뜻한 면을 지니고 있다. 옥봉은 임억령에게서 남도의 가락을 가져왔 으면서도 임억령과는 다른 기교를 통해 그 자신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구축한 것이다. 옥봉은 강남의 사종인 임억령으로부터 따뜻한 배려와 높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의 詩名을 크게 날렸다.

秋草前朝寺요 가을 풀 시든 전 왕조의 절  
殘碑學士文이라 부서진 비에 학사의 글만 남았네.

9) 임억령, 『石川集』, 石川先生年譜 참조.  
10) 임억령, 『石川集』, 第三冊.

千年有流水하고 천년 세월에 물만 흐르는데  
落日見歸雲이라 지는 해에 돌아가는 구름을 바라보네.  
弘慶寺<sup>11)</sup>

弘慶寺는 忠淸道 稷山縣에 있는 절이다. 교통의 요지인데도 인가가 멀고 도적떼가 들끓자 고려 때 顯宗이 절을 세우도록 하고 翰林學士 崔沖에게 명하여 비문을 짓게 했다. 백광훈이 찾아갔을 때는 절은 없어지고 院과 비석만 남아 있었다. 백광훈이 전 왕조의 잔해만 남아 있는 절을 보고 무한한 감개를 느껴 지은 詩이다. 이 시에 대해 허균은 ‘絶唱<sup>12)</sup>이라 했고, 홍만중은 ‘매우 우아하여 古調에 가깝다.’<sup>13)</sup>고 평하였다. 이 『홍경사』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다. 황량한 모습이 펼쳐지고 깊은 감회가 서려 있다. 시만 읽어도 홍경사의 모습이 그대로 눈앞에 재현되는 것 같다. 그래서 옥봉의 시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sup>14)</sup> 이 『홍경사』는 목은 이색의 「부벽루」에서 느껴지는 우아하고 유장한 맛을 간결하게 줄인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옥봉은 전통적 정서를 이렇게 새롭게 재조직하고 있다. 그래서 매천 황현은 옥봉에 대해 ‘五絶千秋一大宗’이라고 평하고 있다.<sup>15)</sup>

옥봉의 시세계를 한 마디로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흔히 꾸밈이 없고 담담해서 ‘枯淡’하다고 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시는 맑고 밝은 느낌이 강하다. 그리고 유려한 리듬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러므로 참신하고 담박하다는 의미의 ‘淸淡’이나 맑고 밝다는 ‘淸亮’이라는 표현이 더 가깝다. 枯淡은 옥봉의 시보다는 인품을 표현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할 수

11) 백광훈, 『玉峯集』上, 五言絶句.  
12) 허 균, 『國朝詩刪』, 卷一, 五言絶句, 白光勳.  
13) 雅絶遍古. (홍만중, 『小華詩評』上, 玉峯白光勳)  
14) 이백순, 『漢文學大槩』, 학민문화사, 1992, 590쪽 참조  
15) 황 현, 『梅泉集』, 卷四, 丁未稿, 讀國朝諸家詩, 玉峯.

있다. 옥봉의 칠언고시 ‘龍江詞’ 같은 경우 유려한 가락으로 유행가 가사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고시의 경우에 칠언은 정보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매우 유리한 시형일 수 있다. 그러나 리듬과 유장한 맛을 갖추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옥봉은 칠언으로 남도의 한과 가락을 잘 풀어내고 있다. 이것은 당시 남도 기녀들의 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가락의 흔적은 현대시인인 김영랑의 시에도 남아 있다. 옥봉과 영랑 모두 남도의 창에 관심을 보인 것도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어렵다. 옥봉과 영랑의 시에 내재된 리듬은 당대 다른 시인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 과제로 남겨 보다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옥봉이 이룩한 한시는 이전의 박상이나 임억령의 한시와는 다르다. 전대의 한시는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다분히 개인적 취향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옥봉은 최경창 · 이달과 함께 송시풍을 지양하고 새로운 경향의 당풍을 받아들여 당대의 문단을 일신했다. 그리고 옥봉의 경우는 남도의 가락을 한시에 수용하여 음향과 흥취를 한층 고취시켰다. 시험 삼아 무릎을 치며 노래 불러 보면 풍성한 것은 궁성이고 갱쟁한 것은 상성이어서 읽는 자가 마음이 맑아지고 창자가 깨끗해진다. 예전에 이른바 ‘천지에는 맑은 기운이 있어 시인의 심중에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옥봉이 이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sup>16)</sup> 이런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옥봉은 박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임억령을 거쳐 성숙한 호남의 시업을 완성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 3. 백의 종사

1572(선조 5)년 중국에서 韓世能과 陳三模가 사신으로 왔었다. 이때 원집

16) 試擊節而歌之 則颯颯者宮 鏗鏘者商 讀之者 心澈而腸潔 古所云乾坤有清氣散入詩人脾者 白子其近之歟. (申 欽, 玉峯集序, 『玉峯集』)

사는 정유길이었고, 찬서자는 소재 노수신이었다. 노수신은 자신도 뛰어난 문장가였지만 제자인 옥봉을 백의제술관으로 삼아 대동했다. 그때 옥봉의 나이는 36세였다. 옥봉은 노수신이 진도에서 19년간 귀양살이를 하면서 만났던 제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옥봉은 22세(1558년)에 아내 하동정씨를 잃고 비장한 각오를 하였다. 하지만 옥봉의 입장에서는 가정이 극도로 어려운 지라 한양으로의 유학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진도에 적거하고 있었던 노수신을 찾아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것이다.

|         |                      |
|---------|----------------------|
| 十月初三日에  | 시월 초사흘 날에            |
| 朋來自遠方이라 | 벗이 먼 곳에서 찾아왔네.       |
| 神交久名聞하고 | 오래전부터 이름 들어 마음 맞았고   |
| 義合可年忘이라 | 의기 합하여 나이마저 잊었네.     |
| 語笑專傾倒하여 | 말하고 웃다 한껏 빠져         |
| 形骸任醉僵이라 | 이 몸을 취한 대로 맡길 뿐이네.   |
| 此生聊爾耳   | 이 생애 다만 이러할지니        |
| 後會更何當가  | 다음 재회를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

‘白生光動至夜飲’<sup>17)</sup>

옥봉이 진도에 있는 노수신을 처음 찾아갔을 때 노수신이 옥봉에게 지어 준 시로 보인다. 옥봉은 진도에서 노수신에게 2년 동안 수학을 하였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보면 당시 노수신의 면모를 잘 알 수 있다. 벽지 적거 생활이라고는 하지만 옥봉에 대해서는 무척 애정이 강했던 같다. 그리고 옥봉의 시적 재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노수신은 자신을 보조할 제술관으로 옥봉을 천거한 것이다. 그 당시 시풍이나 시적 재능으로 봐서 노수신이 제술관으로 옥봉을 천거한 것은 매우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옥봉은 최고의 시적 재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이나 조선에서

17) 노수신, 『蘇齋先生文集』, 卷之四.

유행하고 있던 당시풍에 있어서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옥봉은 백의로 종사했기 때문에 그의 역할에는 다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기껏해야 詔使들의 수창에 대해 관반들을 대신해 작품을 써 주는 정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이 소재를 대신하여 읍시 1수를 지어 중국 사신에게 주었는데, 제2연에 이르기를, “성 위의 날아가는 까마귀는 다 돌아가려 하고, 자리 가의 흐르는 물은 무정하게 가네.”라 했다. 그런데 소재가 ‘歸’자를 ‘啼’자로 고쳤다. 중국 사신이 ‘啼’자에 점을 찍어 돌려보내며 하는 말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반드시 ‘啼’자를 놓지는 않았을 것이다.”라 했다. 그래서 소재가 다시 ‘歸’자를 써서 바꿨다. 중국 사신이 기뻐하며 말하길, “이제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크게 감탄하고 칭찬을 했다.<sup>18)</sup>

옥봉이 제술관으로서 활약하고 있을 때의 일화이다. 옥봉이 ‘城上飛鴉歸欲盡 席邊流水去無情’으로 써준 頷聯을 노수신이 ‘城上飛鴉啼欲盡 席邊流水去無情’으로 수정하여 바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함련의 ‘歸’를 ‘啼’로 수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의 사신이 ‘啼’의 온당치 못함을 지적하여 돌려보내자, 노수신은 옥봉이 처음 지어준 대로 ‘歸’를 ‘歸’로 재차 수정하여 보낸 것이다. 그때서야 중국의 사신이 제대로 되었다 인정하고 칭찬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옥봉이 처음에 지었던 원시가 잘되고 노수신의 수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중국 사신의 지적이 과연 옳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노수신도 당시 대단한 시인이었는데 두 글자의 뉴앙스를 전혀 모르고 ‘歸’를 ‘啼’로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글자가 지니는 뉴앙스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城上飛鴉歸欲盡 성 위의 날아가는 까마귀는 다 돌아가려 하고  
席邊流水去無情 자리 가의 흐르는 물은 무정하게 가네.

(나)  
城上飛鴉啼欲盡 성 위의 날아가는 까마귀는 울며 다 돌아가려 하고  
席邊流水去無情 자리 가의 흐르는 물은 무정하게 가네.

먼저 의미상으로 볼 때 두 글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다. ‘歸’로 쓰게 되면 의미가 단순화되고 무미건조해지게 된다.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이나 공간도 제약이 뒤따른다. 그러나 ‘啼’로 썼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까마귀가 풍기는 음산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훨씬 강화된다. 그리고 상황으로 보더라도 ‘歸’로 썼을 때보다 핏진하다고 볼 수 있다. 까마귀가 날아갈 때 조용히 날아가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조의 측면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歸’와 ‘啼’가 같은 평성이기는 하지만 ‘啼’를 쓰게 되면 읽기에 보다 편하고 부드럽다. 그러니까 흡響이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다만 ‘歸’로 쓰게 되면 바깥귀의 ‘去’와 의미상으로 보다 잘 대응되는 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다. 전체적으로 보면 ‘歸’보다는 ‘啼’가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사신은 ‘啼’보다는 ‘歸’가 낫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측면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신의 개인적 취향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歸’와 ‘去’의 의미적 대응관계를 보다 중요하게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漢文을 감각적으로 구사하는 중국 사신의 우월감이다. 물론 이러한 처신은 뒤에 비판을 수반할 수도 있다. 때문에 중국의 사신들이 이러한 태도를 쉽게 취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지만 가능성은 남아 있다.

18) 公代蘇齋 作一律 呈天使 第二聯云 城上飛鴉歸欲盡 席邊流水去無情 蘇齋改歸字爲啼字 天使點啼字而還送曰 作此詩者 必不下啼字矣 蘇齋更書歸字以呈 天使喜曰 此果是矣 大加歎賞. (『玉峯集』, 年譜)

임신년 한·진 두 조사가 왔을 때에 노소재가 명을 받고 관반이 되었는데

데, 조정에 청하여 공으로 백의제술관을 삼았다. 드디어 역마로 부름에 응하여 제공들의 사이에 명예를 날렸는데, 명경대부들이 모두 관위와 배항을 접고 친교를 청하여 문에 찾아와 얼굴 알기를 위하여 그냥 넘어간 날이 없었다. 집반관을 따라 의주에 이르렀는데 중국 사람들이 공의 시와 글씨를 보고 모두 놀라고 감탄을 하며 ‘백로선생’이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었다.<sup>19)</sup>

옥봉이 제술관으로 활약하고 있을 때의 상황이다. 옥봉은 인간적으로 볼 때 부모에게는 효성이 지극하고, 자식에게는 자애롭고, 봉우에게는 신실했다. 옥봉의 이러한 인품에 대해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인정하고 있던 바다. 그래서 고관대작들이 옥봉의 직급과 상관없이 친교를 맺고 우대하였던 것이다. 중국 사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위직의 조선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옥봉의 시와 글씨를 보고 감탄을 하고 백로선생이라고 극진한 예우를 했다는 것은 중국 사신들의 높은 교양과 인품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옥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옥봉도 중국 사신과 두터운 친교를 맺고 있었다.

|         |                           |
|---------|---------------------------|
| 相隨萬里使하니 | 만 리의 사신을 따라와              |
| 準擬迹窮天이라 | 하늘 끝까지 더듬어 보려고 하네.        |
| 風月樓臺勝이요 | 바람 불고 달뜨는 누대가 좋아          |
| 山川眺賞延이라 | 산천 구경을 계속하였네.             |
| 歸心看落日이요 | 돌아가려는 마음에 지는 해를 보고        |
| 旅鬢近新年이라 | 나그네 귀밑머리 새해가 가까워 오니 희어졌네. |
| 怪我頻惆悵하니 | 내가 자주 서운해 함을 괴이히 여기는데     |
| 逢君是別筵이라 | 그대를 만난 것이 이별의 자리이기 때문이네.  |

‘贈北海處士鄧季達’

19) 壬申韓陳二詔使之來 蘇齋膺命館伴請於朝 以公爲白衣製述官 遂赴駟召 延譽諸公間 名卿大夫 皆折官位輩行 願爲交 造門求識面 無虛日 隨儂至灣上 華人見公詩筆 莫不從 歎 至有稱以白老先生者. (鄭 澍, 墓碣銘, 『玉峯集』 수록)

옥봉이 북해 처사 등계달에게 준 시이다. 등계달의 자는 쫘生이며, 호는 北海이다. 뭇 땅 사람으로 문장과 시에 능했고, 서예에도 뛰어났다. 허봉과 긴밀한 친교가 있었으며 조선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sup>20)</sup> 그의 위치가 어떠한가 그의 임무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높은 위치거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어쩌면 재주는 뛰어났지만 품계는 그리 높지 않은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옥봉은 중국 사신들을 접대하는 과정에 등계달과는 깊은 친교를 맺은 것이다.

수련은 등계달이 조선 사행길을 나서게 된 동기를 말하고 있다. 등계달은 매우 적극적이었던 인물로 보인다. 중국이나 조선이나 사행길은 대단한 명예를 수반한다. 사행은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다. 외교적 수완과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선비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위험도 수반된다. 하지만 선비라면 누구나 한번쯤 나서보고픈 것이 사행이다. 선비로서 以文報國의 길이며 이국의 문물을 접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함련은 등계달이 사행 중 즐긴 여가를 묘사한 것이다. 중국 사신들은 의주에 도착하는 날부터 한양에 이르러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날까지 많은 유람과 향응을 받았다. 경련은 등계달이 돌아갈 때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중국 사신들이 조선에서 머무른 기간은 대개 50여일 정도였다. 아무리 즐거운 사행길이라 하더라도 객지 생활은 고달프기 마련이다.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간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서쪽으로 지고 있는 해를 볼 때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때는 연말이 되어가고 새해가 가까오니 더더욱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한 것이다. 미련은 등계달을 보내는 옥봉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다. 옥봉은 이번에

20) 허 균, 『惺所覆瓿藁』, 卷二十六, 附錄 鶴山樵談 참조.

등계달과 이별하게 되면 다시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음에 등계달이 중국 사행에 참여한다는 보장도 없고, 자신도 다시 제술관으로 발탁된다는 것은 거의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의 수명은 한계가 있어 이런 만남을 다시 기약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처지였다. 그래서 자꾸만 서운해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옥봉을 등계달은 괴이히 여긴 것이다. 아마 등계달은 아직까지 그런 절실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옥봉은 등계달과의 이별의 안타까움을 이렇게 애절한 가락으로 담아낸 것이다.

중국의 장수인 경리 양호가 우리나라 사람의 시집을 보여 달라고 하여, 전조 인물들의 시선을 열람하더니, 문장의 기운이 너무 약해서 좋지 않다고 하였다. 또 중국의 사신 주지번이 최경창과 백광훈의 시집을 보고는 감탄해 말하길, “돌아가 강남에서 인쇄하여 그대 나라의 문물의 성대함을 자랑하겠다.”고 하였다.<sup>21)</sup>

조선조 시인들의 문기가 중국인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양호가 지적하지 않아도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어쩌면 한문으로 문학 활동을 하는 이민족이 지닌 태생적인 약점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조선과 중국의 풍토가 다르고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문학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같은 한자를 구사한다 하더라도 언어에 대한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문학의 여러 요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당나라에 당시가 있었고, 송나라에 송시가 있었던 것처럼 조선에는 조선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풍토에 대한 인식에 있어 높은 교양을 지닌 중국 사신들 중의 한 사람이 주지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번은 양호의

21) 天將楊經理鎬 要見東人詩集 覽前朝人詩選 以爲文氣太弱 不好云 又朱天使之蕃 見崔慶昌白光勳詩集 歎賞曰 當歸辦江南 以誇貴邦文物之盛. (李裕元, 『林下筆記』, 卷之十七, 文獻指掌編, 東人詩集之盛)

경우와는 달랐다. 시나 학문의 식견도 높았고, 조선조 시인과 시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蘭雪齋詩集小引」을 쓰는 등 조선 문인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고, 조선의 문인들이 중국에 소개되는 데도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러한 주지번이 최경창과 백광훈의 시집을 보고 감탄을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본국에 돌아가 출판을 해서 조선 문물의 성대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의 자랑일 뿐 아니라 최경창과 백광훈의 입장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이다.

#### 4. 호남 제일의 명필

예술적 감각은 詩書畫에 모두 통한다. 그래서인지 시에 뛰어난 문인들 대부분은 서예와 그림에도 특출한 재주를 보인 경우가 많다. 그림의 경우는 편시하는 경향 때문에 관심을 보인 문인들이 적지만 서예의 경우는 달랐다. 옥봉의 경우도 서예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고,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

선생이 초서와 예서를 잘 썼다. 하루는 백광훈에게 이르기를, “그대 필력도 놀랄 만하네. 내 일찍이 도정절의 귀거래사를 좋아하여 여기 한 장 써 놓은 것이 있네. 그대가 보겠는가.”하고 꺼내 보이었다. 광훈은 탄복하고서, 청하여 소매에 넣고 가 몇 달을 연습하였다.<sup>22)</sup>

옥봉과 스승인 송천 양응정과 사이에 있었던 일화이다. 양응정의 경우는 부친 학포가 남종화를 연 화단의 선구자였다. 때문에 양응정의 경우 부친과 부친의 친구인 신잠 등과의 만남을 통해 그림에도 뛰어난 안목과 식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외직을 넘나드는 관직 생활 때문에 그림

22) 先生善草隸 一日白光勳曰 君之筆力 亦可畏矣 余竊慕陶靖節歸去來辭 寫出一通 君可賞之否 因出示之 光勳嘆服 請袖來 數月致工焉. (梁曼容, 言行錄, 『松川集』)

에까지 관심을 보이기에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특히 서예에 관심을 보였고,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옥봉의 경우도 스승의 영향을 받아 서예에 관심을 가지고 정진을 했다. 그 결과 초서에 일가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옥봉이 양응정이나 어떤 스승에게 서예에 대한 특별한 지도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 뛰어난 예술적 자질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진한 결과로 보인다. 이점은 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옥봉이 시와 서예에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것은 당시 호남의 예술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백광훈의 자는 창경이고, 글씨 쓰는 법은 왕희지·왕현지에 가깝다.<sup>23)</sup>

위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옥봉의 서법은 二王 즉, 왕희지와 왕현지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왕희지 부자의 서법은 바로 초서를 말한다. 왕희지는 해서, 행서, 초서를 예술적 완성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려 書聖으로 불린다. 그래서 서예에 있어 하늘의 이치를 터득한 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 왕현지는 왕희지의 아들로 초서와 예서에 능하고 단청도 잘 그렸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二王으로 불렸다. 그런데 조선에서 초서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은 중기이다. 고려말기부터 조선초기까지는 趙孟頫의 서체인 松雪體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은 어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말과 조선초는 주로 송나라와 원나라 문물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서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송설체가 고려말과 조선초를 지배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조선초에도 초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졌다. 그러나 초서가 조선 사회에 각광을 받게 된 것은 중기이다. 조선조는 중기에 들어서자 사회 각 방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시에서도 송시풍이 쇠퇴하고 당시풍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서예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 초서의 대가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黃耆老, 백광훈, 한호,

23) 白光勳字章卿字法逼二王。(許筠, 앞의 책, 卷二十六, 附錄 鶴山樵談)

양사언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황기로는 草聖이라는 칭호를 들을 정도로 초서의 대가였다. 한호는 송설체와 초서를 익힌 후 석봉체라는 독자적인 세계를 연 조선 서예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양사언은 시와 서예 모두 능했다. 그는 안평대군, 김구, 한호와 더불어 조선전기 4대 명필로도 유명했다. 그리고 황기호와 더불어 초성의 칭호도 들었다. 그러나 서예에 있어 옥봉의 경우는 제대로 평가를 받은 것 같지는 않다. 한국 서예사를 보면 옥봉에 대해 대부분 유명 서예가로만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젊었을 때에 예원의 말들을 익히 들었는데, 모두가 추앙하기를 옥봉 백공은 시가 성당과 같고, 필법은 영화와 같다고 했다.<sup>24)</sup>

위의 기록을 보면 옥봉의 경우 시가 성당과 같다고 하는데 이 점은 인정받기 어려운 평인 것 같다. 조선조의 시들은 기운이 비교적 약한 편이다. 때문에 어떤 시인의 시도 성당과 같다는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 최경창이나 이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옥봉의 서법이 永和體와 같다고 했다. 영화체는 진나라 왕희지의 서체를 이르는 말이다. 대표작인 난정집서의 첫머리가 永和九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이다. 이 초서는 원래 秦나라 때 만들어졌다고 한다. 특히 진나라 말기는 제후들 간의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隸書나 篆書로는 급박함을 서사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예서를 간략화한 형태의 초서라고 할 수 있다. 초서가 실용적 요구에서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한자가 갖는 자형의 아름다움 때문에 후대에는 미학적 접근이 많이 이루어졌다.

현재 옥봉의 서체를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는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마모된 것도 있다. 또 옥봉의 진적인지

24) 愚少也 習聞藝苑餘論 咸推玉峯白公 詩盛唐 而筆永和。(鄭澐, 墓碣銘, 『玉峯集』 수록)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때문에 옥봉의 서예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많이 알려진 작품으로는 『河西集』, 금성관 상량문, ‘高麗侍中節孝先生徐公碑銘’, 장흥 부춘정 앞의 바위에 새겨져 있는 ‘龍湖’, 부춘정 편액 중 하나인 ‘第一江山’, ‘舟下清灘回寄秀華沙彌’, ‘紙本墨書’, ‘贈四耐翁’, 옥봉기념관의 목판 등이 있다.

『하서집』은 옥봉이 30세에 썼다. 『하서집』을 쓰게 된 동기는 金季義의 부탁에 의한 것이었다.<sup>25)</sup> 옥봉이 『하서집』에 쓴 글의 양은 1250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하서집』은 옥봉이 30세의 혈기 왕성한 시기에 썼기 때문인지 글자 하나하나가 단정하면서도 기운이 생동하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당시 옥봉은 이미 서예가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여러 가지 글을 쓰게 되었다.

진사 강위용과 생원 강위호가 와서 인사를 했다. 나는 외조부와 희춘의 금성관 전후 상량문을 베껴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백광훈의 글씨가 호남에서 제일이므로 그곳에 보내어 쓰게 하는 것만 못하다고 의논하였다.<sup>26)</sup>

1571년 5월 25일에 있었던 『미암일기초』의 기록이다. 미암 유희춘은 나주 금성관 전후 상량문을 옥봉에게 쓰도록 부탁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틀 후인 5월 27일에는 상량문을 쓸 자료를 보냈다. 여기서 금성관의 전후 상량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상량문이 두 개였음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유희춘의 외조부인 錦南 崔溥의 글이고 다른 하나는 유희춘 자신의 글이다. 나주 금성관은 나주목사인 李有仁에 의해서 1487(성종 18)~1489(성종 20)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1603(선조 36)년에 중수되었다. 그렇다면 崔溥가 쓴 것은 初創 때의 상량문이고, 유희춘의 쓴 것은 중수 때의 상량문으

25) 『玉峯集』, 年譜 참조.

26) 進士姜渭龍生員姜渭虎來謁 余令謄寫外祖及希春錦城館前後上梁文 仍議白光勳字劃爲湖南第一 莫若送而令書. (유희춘, 『眉巖日記草』, 辛未 五月 二十五日)

로 보인다. 이 금성관은 나주목의 객사이다. 이 객사는 지방의 관청사로 지방 행정의 중심 건물이다. 나주가 호남 남부의 중심 고을이었기 때문에 금성관의 규모는 매우 큰 건물이었다. 그러므로 이 상량문을 쓴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유희춘이 이 전후 상량문을 옥봉에게 쓰게 한 것이다. 옥봉이 이미 서예에 있어서는 호남 제일로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옥봉의 나이는 37세였다. 당시 미암은 전라감사로서 주위에 많은 인재들이 있었다. 그런데 상량문 글씨를 옥봉에게 특별히 부탁한 것이다. 이것은 미암의 지적처럼 옥봉이 호남 제일의 명필이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현재는 상량문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옥봉의 필적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옥봉 글씨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高麗侍中節孝先生徐公碑銘’<sup>27)</sup>이라고 할 수 있다. 節孝 徐稜은 장성 작동 출신으로 고려 고종 때 효성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 효성을 기리기 위해 공의 15대손 徐堊이 주선하여 비명은 사암 박순이 짓고, 글씨는 옥봉이 썼다고 한다. 그런데 이 비석은 겉면이 심하게 마모되어 남아 있는 글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 그 남아 있는 글자들을 통해 살펴보면 옥봉의 글씨가 아니고, 진사 趙億世가 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옥봉이 쓴 비석은 사라지고 새로운 비를 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비의 비각을 숙종 20(1694)년에 중수하였는데 비각의 현판은 동춘 송준길이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비는 현재 전남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 115번지에 있다.

이 외에도 옥봉의 글씨라고 하는 작품들이 더러 있다.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지금 으로서는 그의 서예 세계를 온전히 드러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가 당대에 최고의 명필로 인정받았던 것은 틀림없다.

27) 박순의 『思庵集』에는 ‘高麗侍中節孝先生徐公旌閭碑銘’으로 되어 있음.

글씨는 중요와 왕희지의 신묘한 경지를 얻었고, 시는 위와 진의 낮음을 부끄러워했네.28)

고죽 최경창이 옥봉의 만사에서 한 말이다. 최경창은 옥봉과 어려서부터 평생을 함께 한 친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다. 그러므로 옥봉의 서예에 대한 최경창의 평가는 사실에 가장 근접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옥봉이 魏나라 鍾繇와 진나라 왕희지의 신묘한 경지를 얻었다는 것은 서예에 있어 최고의 경지에 올랐다는 말이다. 현존하는 몇 점의 작품들을 통해서 보면 옥봉의 서체는 단아하면서도 자유롭다. 그의 한시가 남도의 자유로운 가락을 띠고 있는 것처럼, 서예에도 남도의 활기와 멋이 담겨 있다. 그가 이룩한 그러한 서체를 옥봉체라고 한다. 그는 같이 활동했던 한호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옥봉과 석봉의 서체는 서로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든다. 옥봉의 서풍은 아들인 송호 백진남에게 이어져 다시 한 번 명문 서예가의 전통을 잇게 되었다.

## 5. 결어

옥봉이 한국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조선 중기의 시풍을 송시풍에서 당시풍으로 전환하여 당시 시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가 餘技에서 문학으로서 제 본령을 회복하게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흔히 삼당시인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목릉성체를 빛낸 팔문장이라고도 한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한시의 틀 속에 남도인의 정서와 가락을 도입해 조선조 한시의 흥취를 높이고, 한시가 조선인의 손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8) 筆得鍾王妙 詩羞魏晉卑. (최경창, 『孤竹集』, 五言律詩, ‘挽玉峯’)

그리고 호남시단에서 차지하는 옥봉의 위상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는 ‘五絶千秋一大宗’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시인으로 호남의 시업을 완성했다. 호남의 시업은 박상에게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상은 관직에 있으면서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離騷經』을 외고, 律詩 1수를 지은 후에야 잡자리에 들었다. 이것은 박상이 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박상의 시업을 계승한 사람이 임억령이다. 임억령의 경우는 시업에 대한 집착이 박상의 경우보다 더 강했다. 그는 거의 시 속에서 생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삶 자체가 시를 짓는 일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임억령의 시업을 완성한 사람이 옥봉이라고 할 수 있다. 옥봉은 임억령처럼 시 속에 매몰되지는 않았다. 옥봉은 시를 통해 삶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시를 통해 조선조 시의 폭을 넓히고 격조를 높였다.

옥봉은 1572(선조 5)년 노수신의 추천을 받아 백의제술관이 되었다. 백의로 종사했기 때문에 그의 역할에는 다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기껏해야 詔使들의 수창에 대해 관반들을 대신해 작품을 써 주는 정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선비로서 以文報國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중국 사신의 일행인 등계달과는 깊은 우의를 맺기도 했다. 이처럼 옥봉은 중국 사신들에게 신분을 뛰어넘는 예우를 받기도 했다. 그리고 중국 사신 주지번에게는 최경창, 허난설헌과 더불어 극도의 칭송을 들었다.

옥봉의 경우 지금까지는 그의 시에 대해서만 조명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물론 서예에서도 일가를 이루었다. 특히 초서에서는 한국서예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리고 그는 당시 호남 제일의 명필로 인정을 받았다. 그는 많은 작품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는 『河西集』, 『龍湖』, 『第一江山』 등만이 남아 있다. 옥봉의 서예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차후 옥봉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작업의 시발점이 되리라고 본다.

■ 참고문헌

1. 자료

박 순, 『思庵集』  
 백광훈, 『玉峯集』  
 양응정, 『松川集』  
 유희춘, 『眉巖日記草』  
 이유원, 『林下筆記』  
 임억령, 『石川集』  
 최경창, 『孤竹集』  
 허 균, 『惺所覆瓿藁』  
 황 현, 『梅泉集』

2. 저서

권순열, 『松川 梁應鼎의 詩文學研究』, 월인, 2002.  
 김태준, 『朝鮮漢文學史』(김성언 교주), 태학사, 1994.  
 이백순, 『漢文學大槩』, 學民文化社, 1992.

3. 논문

권순열, 「孤竹 崔慶昌 研究」, 『古詩歌研究』 第9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2.  
 \_\_\_\_\_, 「최경창과 홍량 연구」, 『古詩歌研究』 第16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5.  
 \_\_\_\_\_, 「눌재 박상 연구」, 『古詩歌研究』 第21輯, 韓國古詩歌文學會, 2008.  
 김영국, 「玉峰 白光勳의 詩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김종서, 「16世紀 湖南詩壇과 唐風」,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박병익, 「16世紀 三唐詩人の 唐詩風 研究」,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박영관, 「玉峯 白光勳의 交遊와 詩文學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박종훈, 「玉峯 白光勳의 詩世界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안병학,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최한선, 「石川 林億齡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투고일 : 2009. 12. 31. 심사일 : 2009. 1. 16. 심사완료일 : 2009. 2. 11.>

〈Abstract〉

## A Study on Okbong Baek, Gwang-Hun

Kwon, Soon-yoel

Okbong Baek, Gwang-Hun who is one of the most greatest poets in the mid-Joseon Period did a great contribution to development of Tang-style poetry. So he is called one of the Three Famous Tang Poets. And he is also recognized as one of the Great Eight Writers wh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oetry in mid-Joseon period. He introduced emotion and rhythms of Namdo people to the frame of Chinese poetry to raise elegance of Chinese poetry in Joseon period and demonstrated that Chinese poetry could be elaborated through Korean people.

He was titled the best master in writing a quatrain with five Chinese characters in each line(named Oungelogu) and established a tradition that a position of poet is considered as an occupation. Such tradition began from Park Sang and Okbong completed it via Im Uk-Ryeong.

Okbong was in charge of reception of Chinese diplomats in under the 5th reign year of King Seonjo though he was not a noble. It encouraged him to be royal to the king as a literary person as it was very glorious to him. At that time, he was in low grade of position, but he was cordially served and evaluated

as a great poet.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only on his poetry. However, he was a famous calligrapher of cursive characters in Honam area in mid-Joseon period. So his writing style is called Okbong style. Few of his calligraphic writings left. 〈Haseojib〉, 'Youngho' and 'Jeilgangsant' are still extant as some of his writing.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research on him should be developed for expanded understanding of his life and writing.

**Key words** : Okbong, the Great Eight Writers, the Three Famous Tang Poets, Commoner's working as a diplomat, Cursive writing, and Famous calligrapher.